

# 국민의당 도당, 당원 배가 운동 돌입

### 전당대회 성공 위해 도민·추석 방문객 대상 5만명 목표 총력전... 홈페이지 통해 회계 내역 공개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광수)이 당원 배가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정진숙 사무처장은 2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당원 수가 열세이지만 존재감은 더 커지고 있다"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당원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처장은 "현재 국민의당 전북도당에 등록된 당원은 일반당원 1만8,000여명

가운데 권리당원만 1만1,000여명에 달한다"면서 "아직 당원 당규가 없는 상태에서 당원모집인자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다가올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성공적으로 치러지려면 당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배가 운동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사무처장은 "전북도당은 기존 전북 도민들을 대상으로만 당원을 모집하는 게 아니다. 추석명절에 전북을 방문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당원을 모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소 5만명의 당원 모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확정된 8개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사무처장은 회계처리 투명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 사무처장은 "보통 당비사용 내역을 당보를 통해 공개해 왔다. 회계처리 과정

에서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 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중앙당 역시 '기본 상식을 지키는 정당', '국민과 당원께 책임을 다하는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투명한 회계운영 방침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넓은 정치문화를 타파하고 신뢰받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역사적 기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광명 기자

#### 더민주 사무총장에 안규백 정책위의장에 윤호중 의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당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에 안규백 의원을,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최종 심의할 정책위의장에 윤호중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안 신임 총장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가까운 범주류, 윤 신임 의장은 친문재인계로 분류된다.

추 대표와 신임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당직 인선을 논의하고 이같이 정했다고 윤 관석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정 의장과 가까운 안 총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동대문갑 지역을 지역구로 둔 3선 국회의원이다. 안 총장은 1988년 당직자로 시작해 조직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전략홍보본부장 등 주요당직을 거쳤다.

친문재인계인 윤 의장은 경기 가평 출신으로 구리시를 지역구로 둔 3선 국회의원이다. 1988년 당직자로 시작해 전략기획위원장과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고 이후 정책위의장,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총선정책공약단 공동본부장 등을 거쳐 정책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 /뉴시스



백범 김구선생 묘역 찾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신임 지도부가 2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백범 김구선생 묘역에서 분향하고 있다.

## 추미애, "朴대통령 5·18, 4·3기념식 가라"

### 김영주 "새누리당의 서별관회의 청문회 몰타기 시도 감지돼"

추미애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29일 첫 회의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겨냥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최고 위 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박 대통령은 3년 연속 불참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8년간 한번도 안 간 제주 4·3기념식에 가라"고 촉구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이슬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했다"며 "이는 독재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있는 그대로 쓰여야 한다는 뜻,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추는 것이 4·13총선 민심을 만드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을 겨냥, "지랄스러운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며 "독재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하되 공과를 냉정히 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건국 절 제정 움직임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안 타갑게도 대한민국 법통인 대한민국시 정부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역사를 정권의 논리로 함부로 만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영주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서별관회의 청문회 몰타기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주 한 여당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해외출장 전세비 부담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제기를 최초로 한 언론사의 간부가 답습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며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이목을 분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1석2조의 효과를 노렸다면 새누리당은 자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우병우 수석이 특감 수사를 받는데도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비정상적이다. 국민감정과 맞지 않고 공분을 일으킨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 이상호 "한일 위안부 합의 국회서 다시 점검해야"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를 두고 '소녀상 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회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억 엔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대한 삶이 어떻게 치유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처 주는 이러한 외교적 합의에 대해 대단히 국민들이 분노한다. 10억엔 받고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역사 문제는 돈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로 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번 정부터 본격적으로 청문회가 이어서 진행된다"며 "그간 제기된 많은 의혹과 국민이 걱정하는 민생 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 선출에 대해 "앞으로 더 단결하고 전진하는 더민주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축하를 보냈다. /뉴시스

## "호남, 국민의당 집권 기대 안 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2017년 대선에서 국민의당의 집권 가능성에 대해 "호남당이 집권할 것이라고 호남에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호남에서 안철수 파워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서"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뉴시스

## 국민의당 익산갑 지역위원장 재공모 갈등 여전

### 배승철·정재혁 도당 부위원장 "첫 번째 공모자가 좋지 않다면 이들을 제외하고재공모하면 된다" 주장

국민의당 전북 익산갑 지역위원장 재공모를 둘러싸고 당원간 갈등이 여전하다. 국민의당 배승철·정재혁 전북도당 부위원장은 29일 익산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갑 지역위원장 재공모를 둘러싸고 새정치에 이목이 쏠리는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기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이 합법을 우용하고 폭력과 역지가 선량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주장을 유린하는 일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는 편견과 억지, 불법과 폭력에 맞서 당당히 싸워나갈 것"이라며 "갈등과 분열을 배격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겸허히 국민들과 손잡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위원장 재공모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고 공정한 홀도 없다"면서 "첫 번째 공모자가 흡집이 있거나 자격미달, 지역 여론 등이 좋지 않다면 이들을 제외하고 재공모하면 말이 된다"고 중앙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존에 응모한 두 사람을 받아 주고 또 넓혀서 받아들이겠다는 정치가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역지와

편견을 가진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중앙당이 지역 여론을 감안하고 실사를 통해 공정한 틀을 통한 선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눈을 뜨고 지켜보겠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행보를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익산갑 지역위원장 재공모를 오는 9월 2일까지 진행한다. 아울러 익산갑지역위원장 재공모에는 배승철 후보와 정재혁 후보가 나설 예정이었지만, 재공모를 앞두고 배승철 후보로 단일화했다. /신광명 기자

## 정운천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토론회 개최

국회 정운천 의원(새누리당, 전주을)은 29일 전주대 온누리홀에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오광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 전북지역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북지역 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를 모색했다.

토론회는 한국조달연구원 이상훈 연구실

장의 기초발제에 이어 (유)맑은누리 김관무 대표와 전환경기술 사회적협동조합 박용범 상임이사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구매시장 진입시제를 발표했다.

또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유남희 이사장이 좌장으로, 김형조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 조용환 한국산업융합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조달연구원 이상훈 연구실장은 기초발제를 통해 "부처별, 지역별 공공구매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고, 지역기반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민간지원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창출한 이윤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복지 서비스 확대 등에 재투자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낸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상품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민들에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광명 기자

## "내국인 카지노, 신성장동력으로"

### 오늘 새만금 복합리조트 국회 정책 토론회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복합리조트 건설 근거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제안한 '새만금복합리조트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최근 발의한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복합리조트 도입이 담긴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을 적극 홍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복합리조트에 대한 이해와 경제적 효과 그리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에 따른 규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에드바우어 MGM 수석 부사장의 '복합리조트 비즈니스 모델의 효과', 숙명여대 박재희 경영대학원장의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정책과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군산시 및 시의회, 시민, 각계 찬반론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이게 된다.

김관영 의원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폐해는 9000원에 불과한 입장료, 허술한 연간 출입제한 그리고 4명에 불과한 규제 담당 공무원 등 느슨한 규제에서 기인한 부분이 크다"며 "향후 강력한 규제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도박의 폐해를 예방해 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복합리조트에 발생하는 이익 상당액을 국내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부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폐광지역 경제회생 등을 위해 강원도에 최우선 인배하는 등 새만금의 이익이 강원도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발의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관영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운찬 의원 등 총 45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 이용호 의원, 제2차 게릴라 민생간담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지난 주말 제2차 게릴라 민생간담회를 통해 서남내 정상화·지리산관광개발 등 지역현안현결에 주력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7일 남원시기독교연합회 소속 임원들과 조찬을 갖고 서남내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연합회의 입장을 전달받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합회는 재정기여자로 예수병원을 선정, 서남내 의대를 존치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낙후된 지역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부에 제출된 방안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교육부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남내 정상화는 '비리학교' 오명 논란을 떠나 전북도민의 교육 자존심 문제"라며,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남내를 '지속가능한 튼튼하고 알찬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지리산관광개발발효를 찾아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조합은 "올해 안에 2단계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확정돼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지리산 관광개발이 아니라, 영·호남이 화합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예산확보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운영방식인 자치단체 연계형 사업방식을 넘어, 추후 독립적인 사업을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 주말 임실 다슬기축제, 고문서연구소 관계자 면담, 남원·순창 민간의 날 행사 참석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 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국회의원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송성환 정책보좌기능 제고·지방의회 방향 강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전주3)은 29일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의회 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정책보좌기능 제고방안과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송 위원장의 이번 특강은 지방의회 정책보좌기구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보좌기능 제고방안,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의원들이 바라는 정책지원 방향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필요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방향에 대해 수강한 정책연구원들과 토론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강의가 의회 정책연구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의원들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보다 힘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연구원 공직 이해' 과정은 도의회 정책연구원들의 공직 이해도 및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통한 직무수행 능력 제고로 의정활동 지원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29일부터 9월1일까지 4일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된다. /신광명 기자